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식민지 조선의 자기 표상

— 1930년대 중반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서재길

* **지은이 | 서재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 방송문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도쿄외국어대학 연구원,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대와 홍익대에서 한국 근대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 근대문학의 일본』(공저), 『한국 방송 80년, 그 역사적 조명』(공저), 『근대 한국의 일상생활과 미디어』(공저),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공저),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공저), 『하준 전집』(편저), 『조선 사람의 세계여행』(편저) 등의 저서와 『금수회 의록』의 번안에 관한 연구, 「강요된 협력, 분열된 텍스트: 일제 말기 방송소설을 읽는 독법」, “Dual Broadcasting and Diglossia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등의 논문이 있다.

** 이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비행선과 라디오, 시공의 단축과 동시성의 감각

1929년 가을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한 염상섭의 장편소설 『광분』(狂奔)에는 당대의 최첨단 테크놀로지와 초(超)공간적 미디어의 등장 및 그 사회적 수용이 디테일하게 그려지고 있어 무척 흥미롭다. 이미 단편소설 「전화」(電話, 1925)에서 식민지인의 새로운 미디어 수용 양상을 풍자적으로 그린 바 있는 염상섭은 이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식민지 수도 경성의 유한계층 인물들이 또 다른 뉴미디어인 라디오에 감탄하는 장면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묘사하고 있다. 도쿄 유학에서 돌아온 여자 주인공 ‘경옥’의 대학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이 함께 음악방송을 듣는 장면이 그것이다.

“JODK(췌-,오-, 췌-, 케-) 지금부터는 동경 방송국의 음악을 중계방송을 하겠 습니다. 로서아의 당대 일류 성악가 ‘쿠-튼스키-’씨의 ‘사랑의 갈등’이라는 ‘췌 레나-드’의 독창입니다”

오후 일곱시 이십분이다 여기는 식당이다 경옥이가 미리 경성방송국의 ‘푸로구 람’을 보아두었든지 식탁의 버러진 뒤에 ‘췌’만 먹고나서 마즌벽의 시계를 치어 다보더니 살쩍니러나서 ‘라디오’의 ‘스위취’를 틀어노렸다.

“야! 동경의 음악을 서울 안저서 밥먹으며 듣는 세상이 되다니 우리 손자가 우리 낫세가 되면 비행기를 타고 화성이나 금성에 가서 판스를하고 거기 모던걸을 데 리고 와서 이집에서 새벽잠에 곤드러져 자게 되렸다…….”

주인령감은 ‘스푼’을 노코 ‘냅프킨’으로 입을 찌스며 감개무량한듯이 이런 소리를 한다.

“그야 이번 독일서 온 첩펠린백호에서는 서백리아의 눈에썸 별판을 날아오면서 식당에서 삼판을 마시며 무선전화를 드렸다는데…….”¹⁾

‘주인령감’ 민병천(경옥의 아버지)이 “로서아의 당대 일류 성악가 ‘쿠-투스키-’씨의 ‘사랑의 갈등’이라는 ‘쉴레나-드’의 독창”을 경성에 있는 자기 집 식탁에 앉아 들을 수 있게 된 사실에 감복하고 있는 이 장면에는, 아타고야마(愛宕山)에 있던 도쿄방송국(JOAK)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한 전파를 경성방송국(JODK)에서 단파로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게 된 디테일한 역사적 사실이 배경으로 놓여 있다. 사회부 기자 출신 작가의 저널리즘적 명민함에 의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장면은 근대 초기 미디어 역사의 디테일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기에 미디어에 대한 염상섭의 뛰어난 감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²⁾

단파를 이용한 정기적인 중계방송이 시작되면서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이 동시간적 감각을 공유하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로 묶일 수 있게 된 것은 『광분』이 연재되기 바로 직전인 1929년 8월 하순부터였다.³⁾ 또한 위 인용문에서 민병천 영감이 말하는 ‘첩펠린백호’ 즉 ‘Graf Zeppelin’이라 불리는 ‘LZ-127’ 비행선을 타고 독일의 에케너(Hugo Eckener)가 시베리아를 거쳐 일본의 가스미가우라(霞ヶ浦)에 도착한 것 역시 같은 시기인 1929년 8월 19일의 일이었다. 경성방송국에서 이 비행선이 도착하는 장면을 일본으로부터 무선중계하여 전 조선에 방송하였음은 물론이다.⁴⁾ 비행선을 타고 화성이나 금성을 하루만에 다녀올 수 있으리라는 민병천의 기대가 실현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지만, 당

1) 염상섭, 『광분』, 『조선일보』, 1929. 10. 12(연재 10회분).

2) 이 작품이 ‘시정 20주년 기념 조선박람회’가 한창일 때 연재가 시작되어 광주학생운동이 진압된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식민지 군중이 공동적인 운명체임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들을 그리고 있다는 지적은 이해령, 「식민지 군중과 개인: 염상섭의 『狂奔』을 통해서 본 시론」, 『대동문화연구』 69, 2010 참조.

3) 京城放送局 編, 『昭和四年度事業會計報告書』, 京城: 京城放送局, 1930, 18쪽.

4) 京城放送局 編, 『昭和四年度事業會計報告書』, 21쪽.

시로서는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을 비행선과 라디오가 당대인들에게 가져온 시공간 감각의 변모를 위의 인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한 시공간의 압축이 가져온 ‘전지구적 동시성의 감각’(sense of global simultaneity)⁵⁾이 그것이다.

1927년 2월에 개국한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은 개국 초기 단일 채널의 일본어-조선어 혼합방송이라는 한계와 빈약한 프로그램에서 기인하는 청취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가중되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라디오 프로그램의 중계방송을 모색한다. 당시 일본의 전파가 조선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⁶⁾ 기술적인 장애와 저작권 문제 등의 이유로 일본 ‘내지’(内地)로부터 식민지 조선에로의 중계방송은 전파 전달이 비교적 용이한 가을과 겨울에, 그것도 특별한 편성을 통해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28년 가을 일본의 쇼와(昭和) 천황 즉위식을 앞두고 일본방송협회(지금의 NHK)에서 일본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국적 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서, 이 네트워크의 완성에 의해 단파를 이용한 무선중계가 식민지 조선에까지 가능해졌던 것이다.⁷⁾ 말하자면 일본 천황제 파시즘의 발흥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가 식민지와 제국을 ‘전파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에 의해 식민지와 제국이 ‘전파의 공동체’로 묶이게 되면서 일본어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내지’로부터의 중계방송에 기반해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 청취자들 역시 제국의 소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형국이었다. 1929년 이후 제국으로부터 송출된 라디오 방송

5) Andrew Herod, *Scale*, London : Routledge, 2011, p. 219. 헤로드는 19세기에 나타난 철도나 전보와 같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이 가져온 시공간의 압축 과정에서 개별 지역을 가로지르는 동시성의 감각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표준시’와 같은 글로벌한 시공간 체계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6) 예를 들어 경성방송국 개국 1년 후인 1928년 3월자 신문기사에는 도쿄의 방송을 값싼 광석수신기로도 들을 수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동경의 라디오를 광석기로 조선서 청취』, 『매일신보』, 1928. 3. 25.

7) 1928년 11월 6일 거행된 쇼와 천황 즉위식 방송을 위해 일본방송협회에서는 도쿄(關東), 센다이(東北), 나고야(中部), 오사카(關西), 히로시마(中國), 구마모토(九州)의 각 방송국을 연결하는 방송망을 완성한다. 이때까지 각 지역 방송국은 그 지역의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로컬’ 방송을 하였으나 전국 방송 네트워크 건설에 의해 1928년부터는 동일한 내용의 방송이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방송될 수 있게 되었다. 竹山昭子, 『ラジオの時代』, 京都 : 世界思想社, 2002, 116~117쪽.

은 매일같이 식민지 수도 경성의 가정과 카페와 다방, 그리고 거리로 울려 퍼지면서 일본어를 매개로 한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본어-조선어 단일 채널의 혼합방송 시기 조선어 방송은 소수의 인력으로 하루 수 시간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에 비해, 1929년 이후 일본어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내지’로부터의 중계방송에 기반해서 편성되었다. 각각의 언어를 이용하는 두 채널의 이중방송으로 바뀐 1933년 4월 이후에도 대부분의 조선인 청취자들이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조선어 방송에 귀를 기울였던 것과 달리, 경제인, 상업 종사자, 총독부 및 지방 관료와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일본어 방송을 함께 듣는 다이글라시어적인(diglossic)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⁸⁾ 라디오가 제공하는 동시성의 감각 속에서 재조(在朝)일본인들이 느꼈을 ‘제국과의 일체감’⁹⁾은, 식민지인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복합적으로 다가왔을 터이다.

예를 들어 라디오를 통한 최초의 올림픽 실황중계가 가능했던 1936년 올림픽에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베를린에서 벌어지는 경기가 도쿄방송국을 거쳐 ‘전국’(=전 일본)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종로 네거리의 라디오 상회 앞에 있는 군중들에게 손기정의 마라톤 경기 출발 장면을 중계한 것도 바로 라디오 방송이었다.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에 대한 조선인들의 열광은 경성방송국 개국 이후 형성된 ‘퍼블릭 히어링’(public hearing)이라는 응원 문화¹⁰⁾와 라디오라는 실시간 미디어가 가진 ‘전국적 동시성’이라는 시공간 감각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지만,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상징되는 식민지인의 스포츠 내셔널리즘조차도 제국의 최첨단의 무선 테크놀로지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8) 이를테면 1938년 신년호 『삼천리』에 실린 「설문 사제(四題)」에는 “택에서 무슨 신문과 잡지를 보sey요?”와 “택에서 라디오에서 무얼 드려sey요?”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각계 명사들의 설문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데, 조선어와 일본어 신문 잡지를 동시에 구독하고 있는 이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뉴스, 강연, 음악 등을 즐겨듣는다고 답하고 있다.

9) 이는 만주국의 라디오를 분석한 가와시마 신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川島眞, 『滿州國とラジオ』, 貴志俊彦·川島眞·孫安石 編, 『戦争・ラジオ記憶』, 東京: 勉誠出版, 2006.

10) 사카모토 신이치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약했던 일본에서는 가옥의 구조상 라디오 방송이 집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라디오 체조’ 등에서 볼 수 있듯 집단으로 라디오를 듣는 문화가 일본의 독특한 라디오 청취문화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청취 문화는 식민지 조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의 독특한 미디어 수용 양태로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坂本眞一, 『ラジオの戦争責任』, 東京: PHP新書, 2008, 24~25쪽.

〈그림 1〉 라디오 앞에 앉은 양정고 교장(왼쪽)과 손기정의 모교인 양정고 육상선수 함숙식(오른쪽).



출처 : 『매일신보』, 1936. 8. 11.

그러나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는 제국과 식민지를 일방적으로 연결한 것은 아니었다. 경성방송국에서 만든 ‘로컬’ 프로그램의 전국 중계가 1934년부터 정례화되면서 식민지가 제국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제국의 ‘소리’를 식민지의 하늘 위로 송출하고 있던 전파 네트워크를 통해서 식민지의 고유한 자기 표상이 제국의 영토 곳곳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와 강연, 어린이 프로그램, 그리고 조선 전통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해탄을 건너 다시 조선과 만주 그리고 타이완 등으로 전달되었다. 뿐만 아니라 1935년 12월에 시작된 ‘만선정례교환방송’ 또한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국의 공간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일본제국의 전파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방송협회에서 전국 중계한 방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면모와 여기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의 ‘자기 표상’에 관한 분석을 통해 그 문화정치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의 일부로서 기획되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전국 중계방송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당시 최첨단의 미디어인 라디오가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식민지 조선의 정체성을 표상하고 있었는지를 시론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¹¹⁾

11)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은 1945년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본고에서는 중일전쟁(1937) 발발 이전 시기까지로 대상을 한정한다. 자료가 불충분한 데다가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기에는 ‘동아방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중계방송 구성이 대두되기 때문인데, 이 시기의 중계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식민지 라디오 방송의 '전일본' 중계

경성방송국에서는 일본에서 전국 중계방송망이 구축된 이후인 1929년 봄부터 경성에서 일본으로의 전국 중계방송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음악을 천편일률적인 것으로 치부하던 재조일본인을 비롯한 일본인 청취자들에 대해 일찍부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¹²⁾ 경성방송국의 일본인 방송 담당자는 진정한 '일선융화'라는 관점에서 조선음악의 '전국방송'에 대한 포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방악(邦樂)은 조선 땅 닿는 모든 곳마다 거의 대부분이 소개가 되었다. 조선인들 중에서 도도이츠(都都逸)의 맛을 이해하고 또 이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선(日鮮)융화는 말로만 실현되지 않는다. 조선에 거주하는 이천만 동포는 적어도 내지인이 조선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내지를 이해하고 있다. 고단(講談), 라쿠고(落語)는 물론 나가우타(長唄), 기요모토(清元), 도키와즈(常磐津)까지 이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내지인 중 몇 사람이나 서도잡가나 남도잡가가 지닌 독자적인 맛, 가야금 탄주(彈奏) 등등을 이해하고 조선음악을 들은 적이 있을까. 우선 조선음악을 통해서라도 조선을 알기 바란다. 그 뒤에 비로소 일선융화를 외쳐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장황한 핑곗거리는 제쳐 두고 정해 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선음악의 전국방송을 했으면 한다. 후쿠오카 연주소를 이용하면 지역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이다. 조선 일류의 명수는 맹세컨대 DK子[경성방송국—인용자]가 주선할 것이다.¹³⁾

당시 일본에서의 조선 관련 라디오 프로그램은 일본인 출연자가 조선 사정을 소개하는 강연이나 조선음악 소개, 조선을 무대로 한 라디오 드라마 등의 형태

12) 「朝鮮音樂の獻立(JODK欄)」, 『ラヂオの日本』, 1928. 2, 73쪽.

13) 「朝鮮音樂の全國中繼放送の提唱(JODK欄)」, 『ラヂオの日本』, 1929. 6, 67쪽. 인용문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모두 일본의 전통적인 음악과 공연예술의 장르명이다. 뿐만 아니라 윤백남에 의한 조선 고담(아담)의 일본어 방송을 소개하면서 서 이에 대한 전국 중계의 구상도 밝히고 있는데, 후술하겠지만 윤백남의 아담 방송은 실제로 기획되었다.

〈그림 2〉 조선음악의 스튜디오 중계방송 장면



출처: 日本放送協會 編, 『(昭和六年)朝鮮 / 遞信事業』, 東京: 日本放送協會, 1931

로 산발적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NHK확정프로그램표』(NHK確定番組表)에 따르면 1927년 7월부터 1930년 6월까지 연예, 강좌, 어린이 등 다양한 종목에서 조선 관련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방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이 방송은 도쿄방송국 기획으로 도쿄방송국의 스튜디오를 이용한 것으로서, 경성방송국(조선방송협회)의 기획에 의한 전국 중계로 보기는 힘들다.

경성방송국(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은 1930년 7월 “조선의 고유한 음악과 취미 만담을 방송하기 위하여”¹⁴⁾ 경성방송국 최초의 프로듀서로 일컬어지는 극작가 김영팔이 조선권변(朝鮮券番) 연주자 세 사람을 인솔하여 도일(渡日)한 것에서 시작된다. 당시에는 경성에서 직접 일본까지 전파를 송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까닭에 관부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히로시마(廣島)방송국(JOFK)의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방송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출국하기 전의 신문 기사에 따르면 애초에는 조선권변의 서

14) 「조선음악을 광도(廣島)에서 방송」, 『조선일보』, 1930. 7. 4.

〈표 1〉방송 초기 일본방송협회의 조선 관련 방송 내역

일시	종목	내용	출연	비고
27.7.8	演藝	國境を越る人々		ラヂオドラマ
27.8.3	演藝	朝鮮民謠(念願成就, 國境警備の歌, 平壤の四季等)	潘英山, 朴英月, 鄭英月, 宇賀三郎(解説)	
27.8.13	演藝	朝鮮民謠(農夫歌, 南朝鮮六雜歌, 開城朴淵瀑布歌)	高一聲	民謠之夜
27.10.15	講座	朝鮮陶器の話	淺川伯教	趣味講座
27.11.6	講座	朝鮮の遊びと完具漫談	佐田至弘	趣味講座
28.6.3	講座	この頃の朝鮮	佐田至弘	少年少女講座
29.1.27	子供	刀○沼	佐田至弘	朝鮮童話
29.7.18	講座	朝鮮の金剛山	遲塚麗水	趣味講座
30.3.7	講座	朝鮮婦人の生活と日常	佐田至弘	家庭講座
30.6.2	演藝	朝鮮古代音樂	朝鮮正樂團(李彦植外)	

출처: 『NHK確定番組表』(NHK방송박물관 소장)

산호주, 이옥화, 김남주의 조선음악과 윤백남의 야담 「연산군일화」, 「선과 악」을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방송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윤백남과 이옥화가 빠진 채로 첫날의 조선음악 프로그램만이 방송되었다. 『NHK확정프로그램표』에 따르면 이날 실제로 방송된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⁵⁾

朝鮮音樂

1. 解説: 金永八
2. 行軍樂: 演奏者 徐珊瑚珠
3. 短歌「萬古江山」: 演奏者 金南珠 / 「春香歌」: 同
4. 伽倻琴竝唱: 演奏者 張錦香(「鳥打鈴」/「アリラン詞」/「二八青春」)

일본라디오협회(日本ラヂオの協會)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던 월간지인 『라디오의 일본』에 정기적으로 경성방송국 소식을 실던 'JODK란' 필자는 첫번째 전

15) 참고로 이날 「매일신보」의 라디오 프로그램란에는 9시부터 9시30분까지 '조선음악 전국 중계' 시간이 잡혀 있다.

국 중계방송에 대해 평가하면서, “비용과 인원의 문제”로 조선음악의 전체를 선보이지 못함을 애석해 하면서도 내지인을 향해 “작은 오케스트라”라 할 조선음악을 앞으로 내지인들에게 들려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동시에 일본인 청취자들에게는 한 해에 한두 번이라도 조선음악을 들어 보라고 권유하고 있다.¹⁶⁾

히로시마에서의 전국 중계방송을 시발로 하여 경성방송국(조선방송협회)의 이 전국 중계방송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 특히 조선어 방송과 일본어 방송 각각 독자적인 채널을 갖게 된 1933년 4월 16일에는 이중방송 개시를 기념해 강연과 연예를 포함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한다. 이날의 전국 중계방송은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 정무총감과 야베 겐지로(矢部謙次郎) 도쿄방송국 방송부장의 기념 강연 및 세 가지의 음악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표 2〉 참조).

이중방송이 시작된 이듬해인 1934년부터는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전국 중계방송이 행해진다. “조선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하여”¹⁷⁾ 조선총독부가 일본방송협회에 적극적인 주선을 하여 실시된 이 방송에서는 “조선 산업의 비참한 약진 상태”와 “조선 시사 소개”¹⁸⁾ 그리고 “조선의 독특한 풍속, 예술, 기타 각종 사정의 소개”¹⁹⁾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즉 이 방송은 대개 조선의 현황을 알리는 강연·강좌와 더불어 조선 전통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기방송 첫 회인 1934년 1월 8일의 프로그램은 총독부 체신국장인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의 강연 「전국 중계방송 개시에 즈음하여」에 이어 이왕직 아악부의 ‘조선 아악’, 그리고 당대 최고 인기 가수인 왕수복의 ‘유행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1933년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193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국 중계방송의 면면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 도표를 통해서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 송출은 월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내용은 크게 강

16) 「夏便り(JODK欄)」, 『ラヂオの日本』, 1930. 9, 71쪽.

17) 「조선악 방송 각지에 중계」, 『동아일보』, 1933. 12. 23.

18) 「DK 월 1회씩 조선 사정 방송」, 『동아일보』, 1933. 12. 28.

19) 朝鮮放送協會 編, 『昭和八年度事業報告書』, 京城: 朝鮮放送協會, 1934, 16쪽.

〈표 2〉 이중방송 개시 기념 전국 방송 프로그램

일시	종목	내용	출연	비고
33.4.16	記念講演	十「キロ」二重放送開始二際シテ	今井田清徳(朝鮮總督府政務總監)	
	記念講演	十「キロ」二重放送ヲ祝シテ	矢部謙次郎(AK放送部長)	
	長唄	朝鮮五景	本券連中	
	朝鮮流行歌		姜石燕	
	正樂		趙○鉉	

출처: 朝鮮放送協會 編, 「昭和八年度事業報告書」

〈표 3〉 1933년도 조선방송협회 전국 중계방송 현황

일시	종목	내용	출연	비고
34.1.8	講演	全國中繼放送開始二際シテ	井上清 (朝鮮總督府逡信局長)	
	朝鮮雅樂		李王職雅樂部員	
	流行歌		王壽福	
34.2.2	講演	國境守備隊の現状	大串敬吉 (朝鮮軍參謀長)	國境警備慰安の夕
	講演	國境警備の現状	池田清 (朝鮮總督府警務局長)	國境警備慰安の夕
	俚謠		小雪/孫錦紅 外	國境警備慰安の夕
34.2.13	子供の時間	一. ゴアイサツ	喜頭時彦 (京師附屬小學校六年)嚴 貞燮 (京城女子普校六年)	
	子供の時間	二. ウタ	錄星童謠研究會兒童	
34.3.7	伽倻琴散調		金恩子 外	
	京城四季の遊		本券連中	
34.3.20	講演	神ナガラノ昔ヲ懷フ	崔南善	
34.3.26	童謠齊唱		鶯會會員	全國子供ノ夕中ノ一部

출처: 朝鮮放送協會 編, 「昭和八年度事業報告書」

연, 음악 및 연예, 어린이 프로그램의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강연 혹은 강좌 같은 ‘경과’ 프로그램과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연파’ 프로그램이 골고루 안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방송협회에서 간행한 『라디오연감』의 ‘외지(조선)편’은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의 기본적인 편성 방침을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다.

방송 내용은 모두 조선 독자의 지방색이 가득한데, 강연에서는 각 도에서 다양

〈그림 3〉 왕수복의 유행가 전국중계방송 장면(1934.1.8)



출처: 『ラヂオの日本』, 1934. 4

한 조선 사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내지 인사의 반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는 한편, 연예에서는 조선 고래(古來)의 이악, 향토민요 혹은 신흥 조선의 모습을 그린 유행가 등 이색적인 프로를 내보냄으로써, 강연과 연예 모두 내지 각 방면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켜 아주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²⁰⁾

경과와 연파의 안배라는 이 같은 편성 방침은 이후에도 근본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선방송협회의 1934년도 사업보고서에서는 전국 중계의 내역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 따르면 1934년 4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의 전국 중계방송 프로그램은 강연 11회, 연예 17회, 어린이 시간 5회로 구분되어 있다(〈표 4〉 참조).

여기서 보듯 강연의 내용은 조선의 산업이나 특산물에 대한 소개 등 경제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조선의 풍속이나 현황을 소개하는 것도 포함되어

20) 日本放送協會 編, 『昭和十年)ラヂオ年鑑』, 東京: 日本放送協會, 1935, 300쪽.

〈그림 4〉 녹성동요연구회의 동요 방송 장면(1934. 2. 13)



출처: 『라디오의 일본』, 1934. 4.

〈그림 5〉 피꼬리회 회원의 동요 방송 장면(1934. 3. 26)



출처: 『라디오의 일본』, 1934. 5.

<표 4> 1934년도 조선방송협회 전국 중계방송 현황

일시	종목	내용	출연	비고
34.4.6	講演	朝鮮ノ鑛業ニ就テ	穂積寅六郎 (總督府殖産局長)	
34.5.17	講演	朝鮮人蓼ニ就テ	杉原德行 (京城帝國大學教授)	
34.6.15	講演	朝鮮ニ於ケル資源ト其工業	山村銳吉 (總督府中央試驗所長)	
34.8.4	講演	朝鮮今次ノ水害ニ就テ	今井田清德 (總督府政務總監)	
34.8.18	講演	朝鮮産業ノ姿ト動キ	賀田直治 (朝鮮商工會議所會頭)	
34.9.28	講演	朝鮮ノ秋祭	秋葉隆 (京城帝國大學教授)	
34.10.31	講演	朝鮮ト帝國ノ國防	植田謙吉 (朝鮮軍司令官)	
34.11.29	講演	朝鮮經濟ノ展望	加藤敬三郎 (朝鮮銀行總裁)	
34.12.31	講演	朝鮮ニ於ケル歲末年始ノ諸行事	加藤灌覺 (總督府囑託)	
35.2.13	講演	國境慰安ノ夕ノ挨拶	土師盛貞(平安北道知事) 稻川直位(第二守備隊長)	
34.4.26	演藝	朝鮮民謠「梧桐樹」外 正樂「靈山會像中より」	姜弘植 京城正樂團	
34.5.4	演藝	歌曲「界樂」外 俗謠「山念佛」外	金水晶 外 金玉葉 外	
34.6.21	演藝	民謠「栗賣の唄」外 雅樂「大琴獨奏」外	姜石燕 外 李王職雅樂部 外	
34.7.25	演藝	西道民謠「愁心歌」外 大吹打 回心曲	張鶴仙 外 三昌吹樂團 權命學 外	
34.10.9	演藝	朝鮮民謠ト豊年踊	吳太石 外	
34.11.9	演藝	南道俚謠「報念」外 新歌謠「麻衣太子」外	吳太石 外 金秋月 外	
35.1.10	演藝	合樂「鳳凰吟」 DK當選新民謠	李王職雅樂部 李蘭影 外	
35.2.13	演藝	國境警備の唄 白頭節 外	平安北道警察官有志 京子 外	
35.2.25	演藝	俚謠ト歌曲	李眞紅 金水晶 外	
35.3.28	演藝	新民謠「無情の歲月」外	鮮于一扇 外	
34.4.26	子供の時間	お話「三姓穴」	大石雲平	
34.8.9	子供の時間	お話「朝鮮の氣候」	國富信一 (總督府觀測所長)	
34.12.9	子供の時間	傳來童話「猪になつた若者」	金素雲	
35.1.25	子供の時間	兒童劇「影池」	醇光子供サークル	
35.2.4	子供の時間	傳來童話「燕の脚」	尹白南	

출처: 朝鮮放送協會 編, 「昭和九年度事業報告書」, 1935.

〈그림 6〉 이마이다 정무총감의 강연 방송 장면(1934. 8. 4)



출처: 朝鮮總督府通信局 編, 『朝鮮通信事業沿革史』, 1938

있었다. 연예 프로그램은 아악이나 정악뿐 아니라 민요와 신민요 등이 골고루 편성되어 있으며, 서도 음악과 남도 음악을 구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어린이 시간은 강연 혹은 이야기, 전래동화와 아동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4년도의 전국 중계 프로그램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년도에 이어 강연과 연예 양쪽에 편성된 ‘국경경비 위안의 밤’이다. 여기에서는 나중에 조선방송협회장이 되는 하지 모리사다(土師盛貞) 평안북도지사와 이나가와(稻川) 제2수비대장이 강연의 연사로 등장했고, 특별히 「국경경비 위안의 노래」가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또한 1935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전국 중계는 강연 8회, 위안 8회, 어린이 시간 4회, 실황 6회로 구성되어 있다(〈표 5〉 참조). 이 표에서 특징적인 것은 실황방송과 위안이라는 종목이다. 우선 1935년 4월부터는 기존에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있었던 ‘실황방송’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그 비중도 강연이나 연예 오락만큼이나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황방송이 별도로 분류될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 것은 방송 관련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스튜디오 바깥으로부터의 유무선 중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표 5〉 1935년도 조선방송협회 전국 중계방송 현황

일시	종목	내용	출연	비고
35.4.16	講演	朝鮮に於ける農山漁村振興自力更生運動	富永文一(京城道知事) 鄭僑源(黃海道知事)	
35.5.21	講演	樂浪文化に就て	藤田亮策(京城帝國大學教授)	
35.10.1	講演	始政二十五周年記念日を迎へて 朝鮮始政二十五周年に際して	宇垣一成(朝鮮總督) 齋藤實(前朝鮮總督)	
35.11.28	講演	日本の武士道と朝鮮の兩班道	高橋亨(京城帝國大學教授)	
36.1.23	講演	挨拶 國境警備の體驗談	大竹十郎(平安北道知事) 松岡修一(京畿道警視)	國境警備慰安 の夕
35.4.27	慰安	正樂 靈山會像	京城正樂團	正樂と雅樂
		雅樂 維皇曲	李王職雅樂部	
35.6.14	慰安	田植歌, 草取歌	趙相鮮 外	勞作歌
35.8.25	慰安	慶州, 京城, 平壤, 金剛山	藤崎美恵 外	名所案内競べ
35.10.1	慰安	朝鮮歌謠の變遷	金水晶 外	
35.10.26	慰安	溫突音樂, 機織唄 外	金玉葉 外	
36.1.11	慰安	朝鮮の正月遊び風俗	往十里有志	
36.1.23	慰安	國境警備の唄	警察官有志	
35.4.26	子供の時間	童謠	水下洞少女會	
35.8.9	子供の時間	童話劇 孝女沈清	青邱「コドモサークル」	
35.12.9	子供の時間	お話 朝鮮童話と虎	近藤時司	
36.1.25	子供の時間	釜山港と津江兵庫	松田榮治	
35.7.29	實況放送		朝鮮夜店實況-京城鐘路街頭 より	
35.9.12	實況放送	柳京名月實況-平壤牡丹臺下大同 江畔		
35.10.1	實況放送	朝鮮始政二十五周年記念式典實 況 - 總督府東側廣場より		
35.12.31	實況放送	大晦日の除夜の鐘-慶州奉德寺の 鐘		
36.2.25	實況放送	春季釋尊實況-京城府經學院		
36.3.8	實況放送	朝鮮寺院の涅槃會實況-京城府外 開運寺より		

출처 :朝鮮放送協會 編, 「昭和十年度事業報告書」, 1936.

‘연예’라는 명칭이 ‘위안’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나타난 ‘연예’라는 개념에서 ‘위안’이라는 개념으로의 변모에 대해 일본의 라디오 역사 연구자인 다케야마 아키코(竹山昭子)는 “‘오락’이 ‘오락’일 뿐이라고 해도 헛되이 소모적인 향락의 소재로 방치하지 않고 그것이 태장(胎藏)한 인생적·사회적 기능을 유도하고 계발하여 ‘생명’의 활력소를 흘러넘치게 하는 것”으로 재규정함으로써 방송 종목으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의도적 전략의 산물이었다고

〈그림 7〉 우가키 총독의 시정 25주년 기념 방송 장면(1935. 10. 1)



출처: 朝鮮總督府通信局 編, 『朝鮮通信事業沿革史』

평가한다.²¹⁾

중일전쟁 발발 직전인 1936년 4월에서 1937년 3월까지의 전국 중계방송은 강연 6회, 위안 8회, 실황중계 8회에 어린이 및 소학생의 시간(子供の時間) 6회로 구성되어 있다(표 6) 참조. 여기에서는 기존의 강연과 어린이 및 소학생의 시간을 합쳐 모두 교양으로 분류하고 있는 한편, 실황방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양 프로그램은 조선 특유의 풍속과 로컬리티에 대한 소개(야담, 천연기념물 등), 조선의 역사 소개(조선통신사, 신라사 등)와 더불어 새 총독의 조선 통치 정책(심전개발[心田開發; 불교 용어로 신앙을 통한 정신적 안정을 추구한 것])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안'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전통 조선음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안' 방송으로 분류된 「국경경비 위안의 밤」의 경우 일본인 병사와 경찰을 대상으로 한 실황중계였기 때문에 다른 연예오락 프로그램과 달리 일본인 연주자가 출연하고 있는 것으

21) 竹山昭子, 「慰安放送」, 南博 編, 『遊戯・娯樂』近代庶民生活誌 第八卷, 東京: 三一書房, 1988, 508~509쪽.

〈표 6〉 1936년도 조선방송협회 전국 중계방송 현황

일시	종목	내용	출연	비고
36.4.8	敎養	朝鮮の野談に就て	今村 勲	講演
36.4.16	敎養	「春」外十曲	京城師範附屬普通學校 兒童	童謠
36.5.5	敎養	朝鮮に於ける心田開發に就て	渡邊 豊日子	講演
36.6.26	敎養	「尋五六」お話と唱歌	京城師範附屬普通學校 兒童	小學生の時間
36.7.13	敎養	朝鮮信史の觀たる徳川吉宗	稻葉 君山	講演
36.8.11	敎養	豆摘み婆さんと虎	崔 南善	朝鮮童話
36.9.5	敎養	新羅史の回顧	末松 保和	講演
36.9.18	敎養	朝鮮の風水害に就て	大野 綠一朗	講演
36.10.19	敎養	「留守番」外	旺新學院 兒童	朝鮮童話
36.12.10	敎養	朝鮮の天然記念物(動物)	森 爲三	趣味講演
37.1.21	敎養	「尋五」京城だより(對話)	京城南大門小學校直員並兒童	小學生の時間
37.3.15	敎養	「青い鳥」外十曲	忠信學院 兒童	郷土童謠
36.4.24	歌謠曲		鮮于一扇, 姜弘植	
36.8.2	洞簫と伽倻琴		柳東初 外	
36.11.29	音韻と歌謠曲		金福燾 外	
36.12.12	「アリラン」 づくし		李眞紅 外	
37.1.1	年賀「リレー」		鮮内三局	
37.1.24	國境警備慰問 の夕		三橋孝一郎 外	會寧より
37.2.21	朝鮮雅樂		李王職雅樂部	
37.2.25	朝鮮歌劇		朝鮮聲樂研究會	
36.5.31	實況放送	小鳥の朝		京城昌徳宮 より中繼
36.6.7	實況放送	初夏の野外音樂		京城三清公園よ り中繼
36.6.14	實況放送	農民「デー」實況		水原農事試驗場 水田 より中繼
36.7.1	實況放送	中船大漁風景		京城玄石町漢江 江畔 より中繼
36.8.31	實況放送	假面舞踊と獅子舞		沙里院景巖山麓 より中繼
36.10.1	實況放送	十六夜に砧を聴く		開城滿月臺高麗 王宮跡 より中繼
37.1.17	實況放送	社會見學-樂浪古墳を訪ねて	小泉 顯夫	平壤府外樂浪よ り中繼
37.3.21	實況放送	朝鮮の市場風景	大邱南門市場より中繼	

출처 :朝鮮放送協會 編, 「昭和十一年度事業報告書」, 1937.

로 생각된다. 또한 이전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실황중계의 경우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공간을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성의 명소 이곳저곳, 수원·사리원·개성·평양 등을 골고루 연결하면서 계절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결부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경성-지방의 위계 속에서 지방의 로컬리티를 부각하는 방식은 제국-식민지의 위계 속에 식민지의 로컬리티를 재구성하는 것과 상동적인 관계에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제국으로서의 일체감의 완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 '전국' 중계 방송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의 자기 표상과 그 의미

식민지 시기 조선의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선양어(內鮮兩語)에 의한 이중방송”²²⁾이 지닌 역사적 성격을 필자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타협’(bargaining)의 산물로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자립적 경영을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만한 청취자층이 필요했던 조선방송협회, 전시 동원과 프로파간다를 위해 더 많은 조선인 청취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조선총독부 측의 이해관계는 조선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의 빚발치는 요구와 부단한 해계모니적 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²³⁾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과 조선 일각에서 방송 일원화론 및 조선어 방송 폐지론이 제기되었을 때 조선방송협회에서 ‘조선적 특수성’을 이유로 조선어 방송 폐지 불가를 적극적으로 천명한 것, ‘국어 상용’이 강요되고 몇몇 한글 신문이 폐간되는 상황 속에서도 조선어 방송이 독자적 존립 근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조선어 방송이 ‘식민지 공공영역’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⁴⁾

22) 朝鮮總督府遞信局, 『朝鮮遞信事業沿革史』, 1938, 234쪽.

23) 서재길, 「일제 식민지기 라디오 방송과 '식민지 근대성」, 『사이/間/SAI』, 창간호, 200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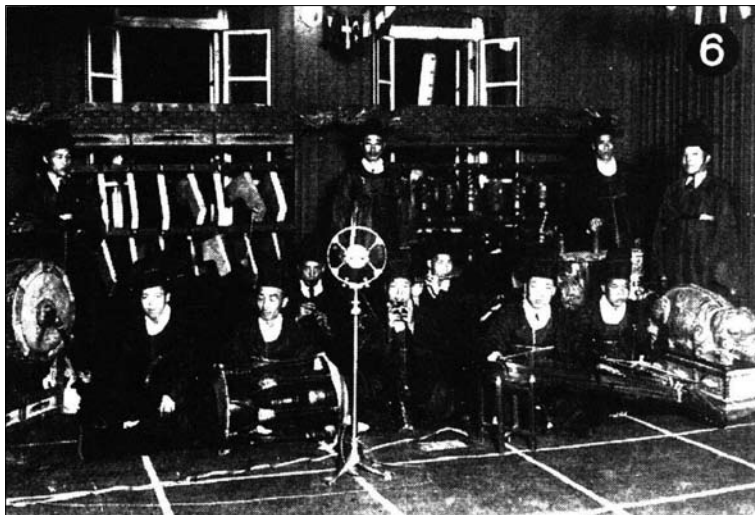
24) Seo Jaekil, "Dual Broadcasting and Diglossia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3 no. 2, 2010.

이러한 관점은 일본어 방송인 경성중앙방송국 제1방송과 도쿄의 제국 방송의 관계를 설명하는 틀로서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제국의 확일성의 논리가 작용하는 도쿄(JOAK)에 대해서 식민지의 방송(JODK)은 식민지 고유의 특이성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우는 한편으로 제국의 일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야 했는데,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이 문제시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 제국의 수도에서 송출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내지’와의 동일성 혹은 동시성을 통해 ‘제국으로서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식민지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제국의 수도를 향해 쏘아 올린 전파는 식민지가 제국을 향해 자기의 존재성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우선 식민권력의 입장에서는 제국과 식민지가 단일한 전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식민지 조선 나아가 만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대륙’에 대한 ‘내지인’의 관심을 고양시켜 제국의 ‘심상지리’(imaginative geography)²⁵⁾를 구성·확장하는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1934년 전일본 중계가 정례화된 이후 두번째 프로그램이 「국경경비 위안의 밤」이었던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만주사변’ 이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중계방송은 조선총독부 측에서 특별한 의도를 지니고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점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국에 있어서 조선총독부와 조선군, 국경수비대가 담당하는 역할을 제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국의 영토의 최전선을 최후방의 ‘내지’와 연결함으로써 제국 속 식민지의 심상지리를 재구성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 1>에서도 확인되듯 도쿄에서 제작한 조선 관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국경’이라는 공간 표상은 식민지 조선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라디오 드라마나 노래에 국경이라는 말과 모티프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25) 이 개념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서양의 자의적인 공간 규정을 지적하면서 사용한 개념 ‘imaginative geography’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공간적 위계질서 표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경덕·임성모 옮김, 이산, 1997, 240쪽의 번역자 주 9번 참조.

〈그림 8〉 이왕직 아악부의 아악 중계방송 장면



출처: 『無線電話』, 1931. 1.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던 조선의 지정학적·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제국의 심장지리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의 조선의 자기 표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²⁶⁾

당시 총독부에서는 “라디오를 통해서 조선 전체 혹은 일본 전체가 하나의 큰 교실이 되기도 하고, 큰 극장이 되기도 한다”²⁷⁾는 발상 속에서 ‘국경경비 위안의 밤’과 같은 프로그램을 연례 행사처럼 기획하고 이를 꾸준히 전국 중계방송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의 테제를 떠올려 보면, 라디오 방송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내용보다 라디오의 전파를 통해서 제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기에서는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흐름’(flow)의 매체인 라디오가 만들어 내는 제국의 심장지리는 궁극적으로 사토 다쿠미가 말하는 ‘파시스

26) “만선문화의 융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日本放送協會 編, 『昭和十一年ラヂオ年鑑』, 東京: 日本放送協會, 1936, 242쪽)으로 하여 1935년 12월부터 실시된 ‘만선정례교환방송’ 역시 제국·식민지 조선·만주국의 심장지리 속에서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27) 朝鮮總督府通信局, 『朝鮮とラヂオの使命』, 『通報』35, 1938. 12. 15, 9쪽.

트적 공공성'을 형성하기에 적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⁸⁾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바 제국의 시선을 통한 식민지 문화예술의 오리엔탈리즘적 호출이라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경성 방송국이 자국 제작 프로그램을 히로시마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최초로 전국 중계하면서 남도 단가, 가야금 병창, 전통 민요를 주요 방송 레퍼토리로 삼은 이래로, 전통 민요인 '아리랑'이나 판소리 '춘향가', 그리고 이왕직 아악부의 아악 연주는 전국 중계방송의 단골 레퍼토리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제국의 지방으로서의 조선이라는 로컬리티의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방송협회 방송 프로그램의 전국 중계는 비록 제국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의해 호명되는 방식이긴 하였지만, 제국 속에서 식민지의 자기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 과정에서 당시의 유행가와 더불어 조선의 전통음악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조선 민요와 이왕직 아악부의 아악은 전국 중계방송의 단골 레퍼토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선의 전통음악과 궁중음악이 조선과 일본뿐만 아니라 만주와 타이완, 중국까지 포함한 동아시아의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다.²⁹⁾ 특히 동아시아 고악(古樂)을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던 이왕직 아악부의 아악 방송은 고대 조선과 일본이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중일전쟁 이후에도 꾸준히 '전국 출중계'되었다.³⁰⁾ 그리고 이는 "일본·만주·지나의 방송사업을 한층 더 긴밀히 하여 조선에서부터도 조선색

28) 佐藤卓己, 「ラジオ文明とファシストの公共性」, 貴志俊彦·川島眞·孫安石 編, 『戦争・ラジオ記憶』.

29) 조관자는 '아악'을 매개로 조선왕조와 일본의 전통음악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전국 중계'된 아악이 "일본의 황실계와 신도계의 제사용 가무를 지시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으로부터 일본에 중계된 아악은 조선 전통의 궁중음악이었다. 趙寬子, 「植民地朝鮮/帝國日本の文化連環」, 東京: 有志社, 2007, 279쪽.

30) 조선 왕조의 궁중음악이었던 아악은 일본에 의한 강제적 '조선 병합' 이후 궁내부 소속의 이왕직 아악부에 의해 유지된다. 이는 시정 홍보와 선전 활동, 그리고 패망 왕조에 대한 회유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총독부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植村幸生,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宮廷音樂の調査をめぐっ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5輯, 1997; 김수현, 「다나베 히사오(田辺尚雄)의 '조선음악조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족음악사학회 편, 『민족음악사학보』 22, 1999.

이 농후한 방송을 속속 전국 중계로 방송³¹⁾ 하겠다는 구상과 결부되는 한편, 태평양전쟁 이후 구성되는 ‘동아방송협의회’ 결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처럼 제국의 시선을 통한 식민지의 자기 표상 과정에서 식민지 본국의 사람들에게 상투화된 식민지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한편으로 제국의 시선을 통해 토착적인 전통문화를 식민지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이중방송 개시 이후 중일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면모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시기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로컬리티와 제국/식민지의 심상지리를 위계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를 통한 식민지 조선의 자기 표상이 제국의 청취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라디오의 일회성이라는 속성도 작용하겠지만, 라디오 수용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여기에서는 확인되는 몇 가지 자료에 대한 소개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선 경성방송국이 본격적인 전국 중계를 실시하기 이전의 자료에 일본에서 조선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의 강한 방송 출력 때문에 야간에는 JODK의 방송 청취가 쉽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성방송국에서는 1929년 봄부터 조선어 연예 방송을 정규방송과 분리시켜 편성하고 있었다. 즉 일본의 모든 방송이 끝난 밤 9시 45분부터 약 45분 정도의 방송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조선인 청취자들을 위한 방송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 시간대에는 일본 ‘내지’의 모든 방송국에서 방송이 정지되므로 일본인 청취자들 중에서도 열성 팬들은 경성방송국의 연예 방송을 즐겨 청취하면서 조선 음악에 대한 나름의 취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³²⁾

또한 중일전쟁 발발 이후의 자료이기는 하나 일본방송협회에서 발간한 잡지

31) 「조선색 방송을 속속 전국 중계」, 『조선일보』, 1940. 5. 18.

32) 「朝鮮演藝放送(JODK欄)」, 『ラヂオの日本』, 1931. 1, 104쪽.

『방송』에서는 ‘엽서회답’을 통해 ‘일본 내지로부터 듣고 싶은 방송’과 ‘일본 내지에 들려주고 싶은 방송’에 대한 앙케트 조사를 실시하여 재조일본인 청취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조일본인들은 ‘조선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 방송’,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을 알기 적당한 것’, ‘아동의 내선 교환 방송’, ‘조선 동포들이 황국신민화되는 모습을 알리는 방송’, ‘반도인의 풍습과 습관에 대해 내지인의 그것과의 차이에 대한 친절한 해설’ 등을 ‘내지에 들려주고 싶은 방송’으로 들고 있다.³³⁾ 결국 재조일본인들의 경우 제국의 지방으로서의 조선이 지닌 병참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내지에 호소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로컬리티가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 속에서 구축되고 있었던 것이다.

33) 日本放送協會, 『放送』, 1940. 7, 34쪽.

鮮通信使)의 활동을 통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관계의 면면을 ‘문화교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조선통신사는 18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300~500여 명의 사행(使行)원인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소요되는 긴 여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긴 여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조·일 간의 교류를 알려 주는 역사적 현장 그 자체가 되었고, 이들 통신사행이 남긴 수많은 사행록(使行錄)은 조선시대 외교관계의 생생한 현장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해 주고 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조선통신사의 활동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그 교류 영역이 학문 전반에 걸쳐 있고 내용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활동 중에서도 조선이 일본에 전한 제사의례(致祭) 양상과 조선의 왕이 하사한 악기의 면면에 대한 것, 조선통신사를 위한 일본 가가쿠(雅樂)의 연주양상 및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남긴 춤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의 오례(五禮) 가운데 하나인 길례(吉禮), 즉 제사의례와 일본의 궁중음악인 가가쿠, 춤 등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일본의 국민(國賓)에 대한 의례(儀禮)와 조선통신사 활동의 면면에 대해서도 아울러 섭렵해야 그 입체적 고찰이 가능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조선통신사의 문화교류 면면을 밝히고자 할 때 학제적인 통섭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선통신사’라는 존재는 거대한 집단이동(움직임)을 통해 단기간에, 정해진 코스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문화전파와 교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특수성을 지닌 집단이므로 기존의 시각에서 더 나아가 문화 비교학적 시야를 갖추고 연구해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 전파되고 있는 우리 문화와 비견되는, 조선시대의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펼친 문화활동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제사의례, 궁중음악, 가가쿠, 한류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식민지 조선의 자기 표상: 1930년대 중반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 서재길

투고일자: 2011년 6월 27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7월 1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중반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 속에서 식민지의 자기 표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문화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뉴스와 강연 프로그램에서 주로 나타나는바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던 조선의 지정학적·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 속에서 심상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의 자기 표상의 측면을 들 수 있다. 두번째로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바 제국의 시선을 통한 식민지 문화예술의 오리엔탈리즘적 호출이라는 측면이다.

주제어: JODK, 조선방송협회, 자기 표상, 전국 중계방송, 오리엔탈리즘

Korean Diplomatic Missions(朝鮮通信使) to Japan : Aspects of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_ SONG Ji Won

With emphasis on the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Chosŏn Dynasty and Tokugawa Bakufu, this article looks at the activities of the diplomatic missions dispatched by the Chosŏn Dynasty to Tokugawa Bakufu(Chosŏn t'ongsinsa朝鮮通信使, hereafter t'ongsinsa) on Japan's request and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Dispatched twelve times until 1811, the Chosŏn diplomatic missions, called t'ongsinsa, usually consisted of 300 to 500 members per mission and completed long itineraries taking five to ten months.

T'ongsinsa's extensive itineraries and their travels vividly provided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inter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ir activities in Japan also ranged over a variety of scholarly fields as well as general cultural diffusion, including sacrificial rituals introduced from Korea, music instruments gifted by the Korean kings, ceremonial music played by court musicians in Japan for Chosŏn envoys, and the dances introduced by Koreans, to name a few. Studying such cultural fields requires interdisciplinary knowledge in some special fields such as the sacrificial rituals of the Chosŏn dynasty, the court music [gagaku雅樂] of Japan, and the protocol of Japan for state guests as well as t'ongsinsa's activities per se.

Traveling to Japan along the fixed routes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 t'ongsinsa, a relatively large group of peopl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he two states. The topic of t'ongsinsa should thus be approached from a comparative cultural perspective.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examines the t'ongsinsa's cultural activities in Japan, which can be regarded as a sort of earlier version of hallyu(韓流), a term expressing the popularity of the contemporary Korean culture in almost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se days..

Keywords : Chosŏn t'ongsinsa朝鮮通信使, cultural interchange, sacrificial rituals, court music, gagaku雅樂, hallyu韓流

The Electric Wave Networks of the 'Japanese Empire' and the Self-representation of Colonial Korea : Focusing on the 'Nation'wide Relays by the Korean Broadcast Association in the mid-1930s _ SEO Jae Kil

In this study, I examine the self-representation of colonial Korea through the historical analysis of the 'Nationwide Connections', a radio network of the 'Japanese Empire' that was broadcasted by the Korean Broadcast Association during the colonial occupation. The self-representation of colonial Korea has two broad meanings in terms of its culture and politics. First is characterized by the emphasis on the increasing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supply base for the expansion to 'the Continent,' which was mainly represented by the news and educational programs. Second is the recalling of Korean traditional arts, which was broadcasted mostly through the entertainment program as a part of Orientalistic approach by the 'Empire'.

Keywords : JODK, Korea Broadcast Association, self-representation, Nationwide Relays, orientalism